

수 학 보 고 서

소 속	명지대학교/경영학과	
파 견 국 가	프랑스	
파 견 대 학	Audencia business school	
파 견 기 간	시작	2024년/9월
	종료	2024년/12월

준 비 과 정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
	<p>저는 3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p> <p>그 배경에 있어서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에선 교환학생이라는 한줄의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현실적인 생각으로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명지대는 4-1학기까지만 교환학생 파견이 가능하기에 1학기 휴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서류 및 면접 합격을 위해 이미 교환학생을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들(블로그, 국제 교류처 수학보고서 등)을 찾아봤고 그를 바탕으로 서류 및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p>
	파견교 지원 과정
	<p>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기에, 경영에 특화된 학교를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환학생의 가장 큰 목표였던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선 아시아권 파견교는 아예 선택권에서 배제하였고, 미국 파견교는 교환학생 비용이 상당하는 후기를 바탕으로 유럽 학교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p> <p>명지대 국제 교류처 후기만 찾아봐도 프랑스 오덴시아 비즈니스 스쿨에 파견을 갔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상대적으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오덴시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p>
	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
	<p>비자: 일단 교환학생 파견이 결정되면, 비자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p>비자라는 것 자체가 하루 아침에 나오는게 아니고, 본인은 약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모든 건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안좋은게 없으니 비자부터 알아보세요 !!</p> <p>네이버 블로그와 프랑스 비자 관련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항공권 : 항공권은 왕복 항공권으로 사는게 가장 저렴하지만 유럽 교환학생 특성상</p>

	<p>대부분 편도로 구매하는 것 같아요 ! (여행이 마치고 집에 언제 갈지 모르니)</p> <p>저는 교환학생 OT일 기준 7일 정도 전에 출국했고 비자도 출국 날짜에 맞춰서 주니, 비자 준비와 항공권 준비는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p> <p>최대한 왕복 항공권으로 사는걸 추천드립니다. 편도로 출국 할 땐 120만원, 귀국할 땐 79만원 들었습니다.</p>
I	<p>공항 픽업 & 오리엔테이션</p> <p>학교 자체에서의 픽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p> <p>저는 파리 in 이었기 때문에 파리에서 일주일 정도의 여행을 마치고 파리 -> 낭트로 가는 기차를 예매했습니다. (omio 어플 활용)</p> <p>낭트기차역에서 트램 (지상철)을 타고 오텐시아까지 약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 입사일이 9/1일이었고, OT는 8월 31일에 이뤄졌습니다.</p> <p>오리엔테이션은 학교에서 반나절 정도 진행했고, 출석 및 성적처리, 학교 사이트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학교 투어를 진행했습니다.</p> <p>학교에서 샌드위치도 제공하는데 이때 한국에서 온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소통했습니다.</p>
	<p>수업 & 학교 활동</p> <p>명지대와 같이 고정 수업, 고정 교실 형태가 아닙니다.</p> <p>매번 LMS와 같은 오텐시아 Tomorrow어플에서 수업 요일 및 시간 강의실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목당 일주일 수업 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로 6과목을 수강해도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p> <p>6과목을 선택해도 반별 형태인 수업으로 매번 보는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들어요. 다른 대학교 친구들의 경우 반에 아시아권 애들이 몰려있어서 나름 편하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30-40명 정도의 반에서 아시아권은 2-3명 밖에 없었습니다. 학기 초반의 경우 친구들과 친해지기엔 어려웠지만 학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애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거나 하는 등 적당히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p> <p>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은 경우 아시아권 애들이 몰려있는 반보다 아시아권 애들이 별로 없는 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반은 랜덤하게 정해집니다)</p> <p>대부분의 수업에 팀플이 있기 때문에 각오하고 가셔야 합니다.</p>
	<p>6과목 중에 중간고사가 있는 과목은 1-2개 뿐이었습니다.</p> <p>대부분 기말고사로 성적을 처리하게 되는데, strategic management 수업은 최대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른 경영 과목은 무난하게 수업도 들을 수 있었고, 시험도</p>

	<p>나름 잘 써서 냈지만, 이 수업은 출석 확인부터 정말 빠세며 기말고사는 약 15페이지에 해당되는 영어 지문을 읽고 case study를 하는 형태입니다. 한국 학생의 경우 긴 영어 지문을 읽는 것부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과목입니다.</p>
	<p>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p>
	<p>오덴시아는 따로 기숙사가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p> <p>저는 따로 집을 구하는 것보다 공립 기숙사를 들어가는게 낫겠다 싶어서 교환학생 합격 후 파견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부터 공립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립 기숙사를 뽑는 시즌에 관련 이메일을 받았었고, 신청 첫 날 바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무작위 추첨이여도 가장 빠르게 신청하는걸 추천드려요.</p> <p>기숙사 요금은 한달에 392유로고 수도세 전기세 모두 포함이었습니다! 보증금도 392유로라 기숙사를 신청하고 합격하면 바로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매달 기숙사 요금은 기숙사 사이트에서 결제할 수 있었고 crous라도 기숙사 시설에 따라 요금은 상이합니다.</p> <p>제 기숙사는 1인이 살아도 충분할 만큼 책상, 침대, 옷장, 인덕션, 냉장고가 다 있었습니다. 기숙사 자체에는 냉동실은 없으며, 전자레인지 사용하려면 공용 주방으로 가서 사용하셔야합니다.</p> <p>방 크기에 비해 화장실과 침대(싱글)는 작았어요 ! 그래도 살다보면 다 적응됐고 기숙사엔 총 3개 동이 있었고, A동과 C동에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씩 있습니다. 세탁기는 2.8유로(세제 자동으로 나옴), 건조기는 1유로였습니다.</p> <p>기숙사에 많은 학생이 살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부족한만큼 눈치게임을 잘 하셔야합니다.,</p> <p>저는 caf를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달을 제외한 10-12월 177유로씩 지원을 받았습니 다. Caf도 빠르게 신청할수록 한달 기숙사 납부 비용에서 알아서 지원금만큼 공제됩니다. 저는 빠르게 신청했으나 신청 서류에서 미제출된 서류가 있어서 12월 말에 모든 신청이 처리됐고 10월부터 12월까지 177*3 유로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Caf라는게 주택지원금인 만큼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갖고, 오랜시간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그 돈 굳이 안받아도 된다 하시면 신청하지 않는걸 추천드려요 😊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도 과정이 복잡해서 결국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답 니다.</p>

	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
	<p>제가 살던 crous 이름은 La bourgeoynniere 크루즈입니다.</p> <p>이 기숙사의 경우 오텐시아와는 2정류장이라 트램으로 5분 정도 소요됩니다.</p> <p>주변에는 U express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장을 봅니다.</p> <p>처음 도착했을 땐 기숙사에서 약 30분정도 떨어져있는 IKEA에서 기본적인 것들 것 장만했습니다. U express근처에는 약국, 은행, 빵집이 있습니다.</p> <p>낭트 자체의 시내 (꼬맥스)는 기숙사 기준으로 20-25분 정도 가야합니다.</p> <p>꼬맥스로 가면 인도신, 토끼 (한국 카페) , 오늘 (삼겹살 집) 등이 있고</p> <p>U express와는 다른 슈퍼 브랜드인 까르푸에서도 장을 볼 수 있습니다.</p> <p>낭트 자체에도 한인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리거나 하신다면,</p> <p>낭트 한인 교회에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덕분에, 한국 음식도 많이 받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p>
	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
	<p>낭트엔 낭트 공항, 낭트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p> <p>프랑스의 다른 도시, 다른 유럽 국가를 여행하기에 용이한 것 같습니다.</p> <p>넷플릭스 구독료처럼 TGV MAX (한달에 79유로)라는걸 구독해놓으면 공강날에 맞춰 파리나 보르도 등 프랑스 다른 도시를 0원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0원표는 미리 예약해야 하고, 예약일 전에 예약확정을 지어야합니다)</p> <p>꼬맥스에는 나름 적당히 먹을 곳도, 카페 갈 곳도 있습니다.</p> <p>꼬맥스는 중심부라 치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p>
비 용	등록금 (해당 학생만)
	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
	<p>보증금 392 유로 (기숙사 퇴사 후 1달 후에 들어옴)</p> <p>1달 월세 392유로</p>
	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

	<p>인슈플러스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였고 이 외에도 caf신청을 위해 아멜리에도 가입했습니다. (아멜리는 무료로 신청)</p>
	<p>생활비</p>
	<p>한달에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은 기숙사 (392유로), 통신비용 (8.99유로), 떼제베 맥스 (79유로) 였습니다. 약 72만원은 고정으로 나갔고, 이 외에 식비 등도 한달에 최소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적게 써야 한달에 120만원일 것 같고 여행까지 간다면 생활비에서 + 됩니다.</p>
	<p>한달 평균 지출 비용</p>
	<p>한달에 생활비 자체는 120만원이지만 여행을 가고, 또 여행을 준비하는 비용이 매 달 들기 때문에 적게 쓴 달은 21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교환을 준비하고 돌아온 순간까지 여행 경비 포함 2천만원 조금 넘게 썼습니다 (프 랑스 국내 여행, 스위스,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여행)</p>
<p>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p>	
<p>교환학생을 통해 가장 좋았던 점은 넓은 세계를 누빌 수 있다는 자유로움과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취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혼자 살면서 능력을 하나씩 키워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를 여행한 사람으로서 모든 여행에는 아쉬움이 있어야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온 김에 다 돌고가자 라는 마인드로 유럽 여행을 했는데 이는 오히려 유럽을 당분간은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도장찍기하듯 했던 여행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꼭 많은 국가를 여행하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행보다는 오히려 현지 학교를 다니고 생활했던 기억이 더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한번쯤 살아보고 싶다, 대학생 아님 외국에 가서 살기 어려울 것 같다,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싶다 하시면 교환학생 강추드립니다.</p>	
<p>사진 첨부 (최소 5장) (사진 1-2는 crous시설 관련)</p>	









